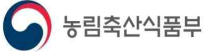



| | |
|---------------------------------------------------------------------------------------------------------------------------------------------------------------------------------|-----------------------------------------------------------------------------|
|  보도자료  | |
| 보도 일시 2022. 1. 5.(수) 11:00 1. 6.(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 5.(수) 09:00 |
|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책임자 과장 김재형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장다운 (044-201-2172) |

**2021년 농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넘어 113.6억불 달성**
- 농식품 85.4억불, 수산물 28.2억불로 각각 역대 최고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농수산물 수출액(잠정)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6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 85.4억불(12.9% ↑), 수산물 28.2(22.4% ↑)

농식품 분야에서는 국제적 물류대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및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 신선농산물 1,571.1백만불(10.0% ↑), 가공식품 6,966.2(13.5 ↑)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김치(159.9백만불, 10.7% ↑), 인삼류(267.2, 16.3 ↑), 라면(674.6, 11.8 ↑), 음료(485.3, 18.2 ↑), 소스류(365.7, 14.7 ↑), 쌀가공식품(163.1, 18.1 ↑), 딸기(64.5, 20.0 ↑), 포도(38.7, 24.1 ↑)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 김치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80.1백만불(12.7% ↑), 미국 28.3(22.5 ↑), EU·영국 14.7(24.9 ↑)
* 인삼 국가별 수출실적: 중국 102.6(25.1 ↑), 미국 34.4(22.9 ↑), 베트남 29.3(34.4 ↑)

또한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도 케이(K)-콘텐츠 등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라면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65.3백만불(19.7% ↑), 대만 31.8(34.9 ↑), 네덜란드 19.3(68.5 ↑)
* 소스류 국가별 수출실적: 미국 81.3백만불(10.7% ↑), 러시아 34.1(25.1 ↑), 일본 37.2(48.8 ↑)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저장·물류·마케팅 등 수출단계별 경쟁력을 높인 결과, 합산 목표 수출액 1억 3백만 불을 달성하며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딸기는 정부가 지원한 전용 항공기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되어 현지 고급 호텔·디저트숍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포도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크기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고가(한송이 약 12만원)로 판매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 딸기 국가별 수출실적: 홍콩 21.7백만불(24.9% ↑), 싱가포르 15.2(8.2 ↑), 태국 8.9(14.9 ↑)
* 포도 국가별 수출실적: 홍콩 9.6백만불(43.7% ↑), 베트남 9.0(10.5 ↑), 중국 8.6(11.0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농업인, 식품기업 및 농식품 수출업체의 노력이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과 어우러져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딸기·포도·김치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정책과 한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하는 등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분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주력 품목인 김, 참치 이외에도 어묵, 굴, 넙치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 김 692.8백만불(15.4% ↑), 참치 579.2(9.7 ↑), 어묵 49.5(9.7 ↑), 굴 80.1(12.0 ↑), 넙치 55.0(27.6 ↑)

그 중에서도 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미국·일본·중국은 물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약 7억 불의 김이 수출('20년 대비 15.4% ↑)되고 있다.

김 수출액 경신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한류 마케팅을 펼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 김 수출 증가액: ('10) 105.2백만불 → ('15) 304.9 → ('20) 600.4 → ('21) 692.8
- * 김 국가별 수출실적: 미국 155.5백만불(12.7% ↑), 중국 139.4(38.2 ↑), 일본 114.1(14.1 ↓)

참치의 경우,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헛감 및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늘어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79억불로 수출액 2위를 지키고 있다.

- * 참치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208.0백만불(16.7% ↑), 태국 64.9(38.1 ↓), 프랑스 53.6(76.0 ↓)

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하였다.

- * 굴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28.5(11.1% ↓), 미국 24.3(42.9 ↑), 홍콩 11.3(29.4 ↑)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수산물 수출액 신기록 달성은 생산·가공·유통인 여러분과 수출업체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도 비대면 소비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산 박람회와 상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식품 업체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책임자 | 과장 김재형 (044-201-2171) |
| | | 담당자 | 사무관 장다은 (044-201-2172) |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책임자 | 과장 김성희 (044-200-5480) |
| | | 담당자 | 서기관 강희정 (044-200-5481) |

붙임 2021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 · 2021.12.31. 잠정치 기준

※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합계)이며, 본 통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잠정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농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주요 품목별

(단위 : 백만불, %)

| 구분 | 2020(확정) | 2021(잠정) | 증감률 |
|---------|----------|----------|------|
| □ 농림수산물 | 9,868.8 | 11,357.3 | 15.1 |
| ○ 농림축산물 | 7,564.3 | 8,537.3 | 12.9 |
| - 딸기 | 53.7 | 64.5 | 20.0 |
| - 포도 | 31.2 | 38.7 | 24.1 |
| - 라면 | 603.6 | 674.6 | 11.8 |
| - 인삼류 | 229.8 | 267.2 | 16.3 |
| - 김치 | 144.5 | 159.9 | 10.7 |
| - 장류 | 99.9 | 106.7 | 6.9 |
| ○ 수산식품 | 2,304.4 | 2,820.0 | 22.4 |
| - 김 | 600.4 | 692.8 | 15.4 |
| - 참치 | 528.0 | 579.2 | 9.7 |
| - 대구 | 56.5 | 96.7 | 71.2 |
| - 굴 | 71.5 | 80.1 | 12.0 |

□ 주요 시장별

(단위 : 백만불, %)

| 구분 | 2020(확정) | 2021(잠정) | 증감률 |
|-----|----------|----------|------|
| 일본 | 1,995.1 | 2,064.4 | 3.5 |
| 중국 | 1,580.5 | 2,068.6 | 30.9 |
| 미국 | 1,519.8 | 1,655.6 | 8.9 |
| 신남방 | 1,970.5 | 2,314.1 | 17.4 |
| 신북방 | 288.9 | 381.1 | 31.9 |